

흑두루미 날고 봉화산 솟고... 순천시 23년 만에 새 CI

순천의 미래 비전 담아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 자부심 표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이어 'K-디즈니'를 향한 전남 순천시가 23년 만에 상징 CI(Corporate Identity)를 교체했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가 도입한 새 CI는 세계화, 글로벌 마케팅 등 순천이 지향하는 새로운 미래 비전을 담아낸 워드마크로 결정됐다.

낙안읍성을 탄 기운 CI는 2001년 도입되면서 '문화·교육 도시'라는 당시 도시 비전을 강조했다. 하지만 순천만의 높아진 상징가치와 정원박람회로 달라진 도시 위상을 담아내기 위한 새로운 CI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순천시 상징물 디자인 개발 용역을 통해 본격적인 CI 개발에 착수했으며, 공청회, 선호도 조사, 공공디자인 심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신규 통합브랜드를 정했다.



6일 전남 순천시 그린 아일랜드에서 노관규 순천시장과 정병희 시장의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시 새로운 CI 선포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순천시 제공)

워드마크 속 'S'는 순천만 습지 물길과 힘차게 날아오르는 흑두루미를 상징하며, 휘감고 있는 형태의 'C'는 문화, 관광, 경제, 복지 등 전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E'는 순천의 대표적인 산인 '봉화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의 자부심을 나타냈다.

색상 역시 순천을 상징하는 자연의 색으로 구성했다. 흑두루미 블랙, 오천광장 그린, 순천만 오렌지, 짙푸어 블루 등 순천 대표 지역자원에서 추출한 색이 전용 색상으로 지정됐다.

6일 그린 아일랜드에서 펼쳐진 '순천시 새로운 CI 선포식'에서 시민을 비롯해 기관, 단체 회원 1000여 명은 새로운 상징물을 향한 시민

들의 열띤 관심을 보였다.

선포식에서는 CI 개발 경과보고와 함께 선포 합동 퍼포먼스가 펼쳐졌으며, 노관규 순천시장과 정병희 순천시장이 순천의 미래를 상징하는 어린이 2명과 함께 신규 워드마크가 새겨진 시기를 계양해 선포식의 의미를 더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23년 만에 교체된 신규 CI는 순천 역사에 새 막이 올랐음을 의미한다"며, "시가 지향하는 새로운 미래 비전을 담아낸 신규 통합브랜드의 의미처럼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남해안 벨트 허브 도시 완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희 순천시장은 "새로운 CI는 대한민국 대표 생태·정원도시라는 순천의 가치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상징"이라며, "순천시의회도 새로 선포된 상징물의 의미에 걸맞게 시가 일류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롭게 도입된 CI는 선포식 이후 순천시와 관련된 각종 시설물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CI는 기관이나 단체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대표적 상징물을 의미한다.

순천=김승호 기자

고흥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지원금 준다

고흥군이 관광객 1000만 시대 도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지원금을 제공한다.

6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 적용에 따른 여행업 등록 여행업체로, 일반 단체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이 해당한다.

단체 관광객이 고흥군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여행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내국인 15명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의 일반 단체의 경우 1인당 1만5000원(1박 2식), 2만 원(2박 4식) ▲수학여행단(30인 이상)의 경우 1인당 6000원(당일 1식), 1만 원(1박 2식)을 지급한다.

군은 관광지를 유·무료로 구분하고 유료 관광지 및 전통시장 각각 1개소 이상 방문하도록 하는 등 관광 지원 사업의 실익을 높일 계획이다.

군의 지원을 원할 경우 고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쌓아온 단체관광객 방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행코스 개발에 착수하는 등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홍보 전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보성군, 조성면 민관합동 설 명절 맞이 대청소 실시

보성군 7일 조성면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주민과 귀성객들을 위해 깨끗하고 쾌적한 고향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시가지 주변 도로, 조성오일장 등 면 소재지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성면이장협의회, 여성자원봉사회, 새마을지도자회 등 10여 개의 기관 단체 및 봉사단체 소속 회원 50여 명이 함께 했다. 또한,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정인숙 조성면장은 "우리 동네는 우리가 가꾸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자율적으로 설맞이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해 주신 기관 단체와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설 연휴 기간 생활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 체계 구축 및 무단투기 계도·단속을 통해 청결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명순 기자

여수시 화장동·웅천동 에듀파크 공영주차장, 시범 운영

여수시가 최근 준공한 화장동·웅천동 에듀파크 공영주차장을 설 명절 기간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시범 운영은 설 명절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본격 운영에 앞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시범 운영 기간은 ▲화장동 공영주차장은 2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로, 이 기간 무료로 개방되며 이후 유료로 운영된다. ▲상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웅천동 이순신도서관 앞에 조성된 웅천 에듀파크 공영주차장 지난 6일부터 전면 개방됐다.

화장동 공영주차장은 대지면적 3,066㎡에 9,900백만 원을 투입, 지상 3층 규모의 주차장 295면으로 조성됐으며, 화장실 등 주차장 편의 시설도 갖춘 우리시에서 가장 큰 타워형 공영주차장이다.

또 웅천 에듀파크 공영주차장은 대지면적 4,193㎡에 2,250백만 원을 들여, 104면의 지평식 주차장으로 조성됐으며, 이순신도서관·어린이 문화체육센터·육아지원종합센터 등 공공 시설 이용자들의 주차 편의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기동취재본부

가족형 문화공원 '광양 어린이 테마파크' 상반기 첫삽

소재전문과학관·상상놀이터 전시장 등으로 구성하기로

광양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리고 천만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를 위해 추진 중인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가 올해 상반기 착공된다고 6일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구봉산 자락 중앙근린공원 내에 들어설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는 국내 최초 소재전문과학관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상상놀이터, 숲속야영장 등 가족형 문화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연면적 7010㎡,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예정인 공립 광양 소재전문과학관은 기획전시관, 어린이전시관, 상설전시관 등을 갖추고 소재 원더월드, 소재의 힘, 소재의 비밀, 소재의 혁신 등을 테마로 소재에 관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보여주게 된다.

상상 놀이터는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연면적 2820㎡ 규모의 놀이공간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놀이터가 될 상상 놀이터는 모험의 산, 비밀의 동굴, 감각의 바



다, 마법의 연못, 상상의 숲 등 5개의 테마로 구성된 실내 놀이터와 실외 놀이터인 상상 공원으로 조성된다.

정인화 시장과 전문 자문단, 공무원 20여 명은 5일 광양시청에서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를 채울 전시콘텐츠 최종보고 및 자문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최종보고회는 공립 광양 소재(Material)전문과학관과 상상놀이터에 조성될 전시물 제작·설치 설계에 관한 설명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의견 수렴 등 순서로 진행됐다.

광양=기동취재본부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